

■ 특별기고



김형길

2002학년도 수능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71만 여 명)이 응시한 2010학년도 수능이 끝났다. 수능을 잘 쳤든 잘 못 쳤든 지금은 출가본한 마음으로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을 고3 학생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수능점수 정확히 채점하자

수능 시험이 대학 입시의 끝은 아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제공되지 않고 각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시되지만 수능 성적에서 원점수를 정확히 채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채점이 바탕이 되어 영역별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추정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수시 2차에 응시한 학생들은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미리 짐작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시 2차 모집대학들 중에는 대학별 고사가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주요 대학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수능 점수가 예상 점수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면 대학별 고사에 결시하고 정시모집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반면 예상

보다 점수대가 낮게 나온 학생이지만 최저 학력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학별 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수시2차를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하는 대학들(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인제대 등)이 아직 남아있다.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이다.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접수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전형 방법등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잘 세워 두어야 한다.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아직 기말고사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기말 고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학생들 중에서 3-2학기 성적은 정시모집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몇몇 있다. 보통 주요대학들은 3학년의 비율이 최소한 33.3% 이상의 비율로 반영된다.

특히 2~3학년 내신을 통해서 반영하는 대학인 경우는 3-2학기 한번만 내신을 잘 봐도 내신 성적을 상당히 만회할 수 있다. 기말고사가 끝났다면 대학별 실질 반영비율을 계산해 보고 지원자들의 평균 내신에 비해 총점에서 어느 정도 감점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기 바란다.

전략만 잘 세우면 기회는 있다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도 기회는 있다. 최근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100%로 우선선발하는 대학과 모집군에 따라 수능 100%로만 선발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학생부 성적이 나쁜 학생이라도 훌륭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모집요강을 반드시 정독하자

모집요강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입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까지도 모집요강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탐구 영역 반영과목 수를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필수 사항은 수능 점수를 반영할 때 표준점수/백분위 반영 여부, 자체 변환점수 사용여부, 수리 가/나형 반영방법과 가산점 여부, 제2외국어 반영방법과 가산점, 최저학력기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내신의 반영방법을 숙지하고 명목상 반영비율이 아니라 실질 반영비율을 꼼꼼히 쟁겨야 한다. 실질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에서는 수능성적으로 만회하기 힘든 대학들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도 다양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일반전형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해당 전형의 모집요강을 숙지해야 한다. (예, 사회기여자 및 소년소녀가장,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이나 교사 추천 전형, 수상/어학/자격증 관련 전형 등)

대학·학과 특성 정보파악을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대해서 정보를 잘 파악해 둔다. 작년 본교 출신 학생 중 경북대 경영학과와 부산외국어대 글로벌 자유 전공학부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대학인지도에서 낮은 부산외대에 등록을 했다. 글로벌 자유 전공학부는 미국과 호주 등 영어권 해외복수학위협정 체결 대학과 2+2 프로그램 운영되며 외국대학 2년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산외국어대학 외에도 최근 대학들은 다양한 해외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교비 지원 해외 연수, 해외 인턴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학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직접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과나 학과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온라인 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자세한 현실적인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교사 신뢰해야

끝으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입시컨설팅을 많이

이 아니다.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는 원점수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입시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해주는 분은 담당 교사이다. 학생 개인의 수능 성적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이나 학과선택에 필요한 학생의 잠재력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대학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담당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예문교과 진학담당 교사



아동학대 발생 신고는
1577-1391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게임중독 폐해 막자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과잉된 게임중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나마 어린 시절 한때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행정당국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 등이 적극 나서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본다.

조금만 늦어도 어떠한 부작용이 우리에게 닥쳐 올 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해성 (대연2동)

폐형광등 수집장소 지정하자

형광등을 판매하는 업소나 지역통(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행정상 조치가 시급한 문제다. 특하게 길에 버려져 있는 폐형광등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불행을 물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버려진 폐형광등을 119에 신고를 하거나 폐형광등을 직접 반납하는 분에게 특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태선 (우암1동)

■ 살며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동행하는 푸드마켓을 꿈꾸며...



강경국

지난 해 10월 푸드마켓(기부식 품지원센터)에 대한 일간지 기사를 접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다른 구 푸드마켓 현장을 방문했었다.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푸드마켓 설치 운영을 위한 모든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였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 현장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 화려한 일구 간판과는 달리 진열대는 군데군데 비어있었고 진열대 위에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이 설탕 손이 가지 않는 물건들, 간혹 참기름, 김, 음료수들이 보였다. 대형냉장 냉동고는 보관

물품에 비해 너무 적기세만 측은 내는 것 같았다. 그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과 직원들에게 어렵사리 말을 걸어 신분을 밝히고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가부 물품이 적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물건이 부족하고 후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정부 예산을 들여 설립은 가능했지만 아직은 인색한 기부 문화 분위기속에서 실제 운영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부식 품지원센터를 우리구에 만들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 출장길에 마포지역 푸드마켓 운영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역시 잘 되는 곳은 분위기부터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올해 2월 사업신청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운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사회적 기업 '솔라피데'를 운영하고 있는 (사) 소망재활센터를 새 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구청

에서 가까운 곳에 아담한 '남구동행푸드마켓'을 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물품을 후원받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준비가 미비하고 아직은 서툴러서 부족한 면이 많지만 함께하고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숨은 후원자들이 있기에 머지않은 시간이 반드시 제일 잘 나가는 푸드마켓으로 우뚝 설 것을 예감한다.

쉽지 않은 일을 추진하면서 어깨에 힘이 빠질 때마다 용기와 지혜를 함께 준 많은 분들에게 이면을 통하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홀로 어르신, 한 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은 적은 양의 물품을 드리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과 감사를 담으로 드리고자 한다.

우리 모두의 동행(同行)을 위해...

(주민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노르딕 워킹교실을 열자는 용호1동 김지영씨의 권유에 대해 답변해드립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평화공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보건소의 운동처방사와 함께 스트레칭, 올바르게 걷기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강운동대학을 개설하여 10주 동안(1주일에 2번)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노인 실버댄스, 영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씨 의견을 참고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이진아>

건강체험실 예약 이용을

건강체험실의 인력보강에 대한 정현진씨의 의견에 답변해드립니다.

건강체험실은 운동처방사 1명이 남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건강체험실이 운동처방사가 항상 상주해서 운영되면 예약을 받지 않고도 주민들이 언제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운동프로그램이나 외부 이동체 합관 운영이 많은 관계로 불시에 방문하여 헛걸음을 하시는 민원분들이 많이 발생하여 예약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진님의 말씀대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니 예산부족으로 인력 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차후 예산이 확보되어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이진아>

임상자 선정 원칙 지켜

남구노인노년노자랑 행사 때 임상자 선정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아쉬웠다고 지적해 주신 우암1동 박영준님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당일 행사 진행 중 사회자가 참가한 어르신에게 재미를 유도하기 위해 실제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의미에서 "몇 살이시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해당 어르신이 재치 있는 답변으로 실제나이보다 낮춰 "50대"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 분이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오해를 하셔서 독자의 소리에 투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남구노년복지관은 어르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남구노년복지관·김은경>

최민식의
진실한 이야기

한국적인 고전적 행사의 한 장면이다. 한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없으며 오로지 현실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진은 '삶의 예술'로 규정할 만큼 가장 빼어난 삶의 양식의 하나다. 나는 이 장면을 찍으면서 비교되는 가난한 서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하전함을 느꼈다.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사진작가·대연1동

남구 동행푸드마켓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태평양건설 박상호 회장 쌀 540포 ▲부산동부신협 쌀 33포 ▲엄이순총무김밥(대표 오수현) 쌀 80kg(매월) ▲오륙도 여성새대봉사단 쌀 50포 ▲코스르크 수영점 50만원상당 식료품 ▲신영식품 김 10박스 ▲탐미트 김만점 라면 10박스 ▲연화사 라면 5박스 ▲부산유류협동조합 100만원상당 우유 ▲개나리상사 이불 6채 ▲인각사 차약 288개 ▲시민여과 김라면 50박스 ▲생활공감점재 남구주부모니터단 현금 30만원 ▲발동마르토(대표 박수근) 현금 20만원 ▲홍재현 현금 10만원 ▲종무불점식당(대표 강영석) 현금 50만원 ▲백화교회 현금 10만원 ▲굿스 태평선식(대표 고선이) 현금 20만원 ▲대연6동 방위협의회장 이수균 현금 10만원 ▲새마을부녀회 후원회장 유정희 현금 30만원 ▲우암1동 방위위원회장 박원균 현금 5만원 ▲부산동부사회복지서비스센터 산도우미 파견사업 이가미지 현금 5만원



선용의

1000자 지혜 78

믿음은 힘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사람(人)과 사람(人)이 서로 의지하며 버팀이 되고 힘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일반 동물과 다른 완전한 사람(人)이다. 그래서 그 버팀과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바로 '믿음'인 것이다. 믿을 신(信)자가 말해주듯이 진실한 사람(人)의 말(言)은 '믿음성'이 있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글자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친구가, 이웃이, 부부가, 심지어 부모형제까지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다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누군가가 먼저 자아(自我)를 버리는 것이라 했다. 마음을 비우라 했다. 그리고 믿음이라 했다. 알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 자기가 최고인데,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데, 남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따를 수 있나?

진(眞)나라 때 범자화(范子華)는 평범한 백성이지만 임금도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의 말이면 모두가 정말이라고 믿었다. 하루는 범자화가 사람을 앞에서 높은 언덕을 가리키며 '저 위에 올라가 뛰어 내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높이를 봐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될 것

이 뻔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아무 재주도 없으면서 남의 말을 잘 믿는 농부 상구개(商丘開)가 올라가 새처럼 몸을 날려 가볍게 땅 위에 내려섰다. 사람들은 어찌나 운이 좋았는지 하며 다시 장난삼아 강에 굉장한 보석이 있다고 꼬드쳤다. 상구개는 또 그 말을 믿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보석이 많이 있어 황제를 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당신은 신의 묘기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친구가, 이웃이, 부부가, 심지어 부모형제까지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다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누군가가 먼저 자아(自我)를 버리는 것이라 했다. 마음을 비우라 했다. 그리고 믿음이라 했다. 알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 자기가 최고인데,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데, 남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따를 수 있나?

진(眞)나라 때 범자화(范子華)는 평범한 백성이지만 임금도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의 말이면 모두가 정말이라고 믿었다. 하루는 범자화가 사람을 앞에서 높은 언덕을 가리키며 '저 위에 올라가 뛰어 내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높이를 봐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될 것

이 뻔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아무 재주도 없으면서 남의 말을 잘 믿는 농부 상구개(商丘開)가 올라가 새처럼 몸을 날려 가볍게 땅 위에 내려섰다. 사람들은 어찌나 운이 좋았는지 하며 다시 장난삼아 강에 굉장한 보석이 있다고 꼬드쳤다. 상구개는 또 그 말을 믿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보석이 많이 있어 황제를 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당신은 신의 묘기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친구가, 이웃이, 부부가, 심지어 부모형제까지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다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누군가가 먼저 자아(自我)를 버리는 것이라 했다. 마음을 비우라 했다. 그리고 믿음이라 했다. 알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 자기가 최고인데,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데, 남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따를 수 있나?

